

삼성전기 “연내 사계절 전천후 전장용 카메라 모듈 양산”

유리-플라스틱 하이브리드 렌즈 자동히팅·온도유지 기술 확보 눈·안개 등 악천후에도 품질 유지

삼성전기가 악천후에도 품질을 유지하는 전장(차량용 전기·전자 장비)용 카메라 모듈을 올해 양산한다. 카메라에 물이 묻어도, 섭씨 -40~50도에도 화질을 유지하는 제품이다.

삼성전기가 연내 사계절 전천후(Weather Proof)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IT용 카메라 모듈 대비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카메라 모듈이다. IT용 카메라와 다르게 전장용 카메라의 경우 작동여부에 따라 안정성 확보가 달라진다. 외부 환경의 열악함에도 작동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삼성전기가 이번에 소개한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눈, 성에, 안개 등 기상악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전천후 전장용 카메라 모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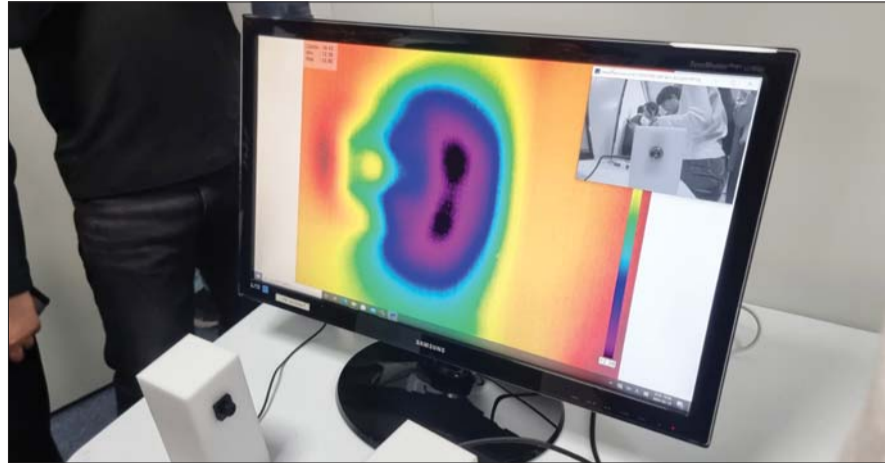
곽형찬 전장광학팀장 상무는 “최근 일어난 자동차 사고 일부는 자율주행센서가 트럭 흰색과 하늘색을 구별하지



곽형찬 삼성전기 전장광학팀장 상무가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기

못하거나, 악천후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하는 등 기술 부족에 기인했다”며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정확히 식별하고 끊임없는 센싱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는 센싱 기술 향상을 위해 자동차용 카메라의 유리렌즈 장점과 스마트폰 카메라의 플라스틱 렌즈 둘의 장점도 함께 취했다. 유리렌즈는 빛 투과율과 굴절률이 높고 흠집이 안 나지만 무겁고 충격에 약하며 연마 가공 탓에 생산성은 낮고 단가는 높다. 반면 플라스틱 렌즈는 사출성형 방식의 제조공



전장용 카메라 모듈의 모습. 히팅 기술을 탑재해 1분 내 성에 제거가 가능하다. /뉴스시스

법으로 대량 생산이 쉽고 가격도 저렴하며 경량화·소형화·형상자유도가 가능하다. 반면 온도 변화에 의한 수축·팽창이 커 굴절률이 변하면서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 삼성전기는 두 렌즈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완한 하이브리드 렌즈로 개발했다.

외부 환경의 혹독함에서도 안정적인 시야 확보 등을 위한 기술도 연구했다. 삼성전기는 발수 코팅 기술을 개발해 발수각을 최대화해, 물방울이 렌즈에 접촉하는 면적을 최소화 하고 물방울이 쉽게 날아갈 수 있게 했다.유사 발수 코팅은

일반적으로 햇빛 및 자외선에 노출시 마 모되지만 삼성전기의 발수 코팅 렌즈는 기존 시장에 있는 제품보다 수명이 약 6배 이상 길며, 흠먼지, 주차시 긁힘 등에 의한 마모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성능은 약 1.5배 이상 수준이다. 더불어 자동히팅 및 온도 유지 기술도 확보했다.

곽형찬 상무는 “마모를 버티는 것이 관건인데 자사 제품은 시장 제품(6~7개월)과 달리 3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빛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조리개(IRIS)도 탑재했다.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로는 세계 최최소다. 빛의 양을 오차 없이 조리개를 열고 닫는 정밀한 기구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 고성장 중이다. 차량 한 대당 카메라 모듈이 4~5개 사용되나 현재 자율주행 차량에는 20개를 사용중으로, 이는 추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CO NSEGC BUSINESS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 규모는 2023년 31억 불에서 2030년 85억 불로 연평균 약 13.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기는 IT용 카메라 모듈 기술력(Big Sensor, 가변조리개, 풀디즈줌 등)을 바탕으로 카메라 모듈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편 카메라모듈은 스마트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고화질, 소형/슬림화 및 저전력화, 고강성 등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삼성전기는 렌즈설계 및 고품형기술, 고성능 액츄에이터 제조 등 카메라모듈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주요 스마트폰 업체에 카메라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전자, 주주총회 경영진 참석규모 확대

조주완 사장, ‘실적·비전’ 직접 답한다

‘열린 주주총회’ 콘셉트 개최 신규 주주환원정책 발표 예정

LG전자가 오는 26일 여는 제22기 정기 주주총회 콘셉트를 ‘열린 주주총회’로 정하고 소통·알림·나눔의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알렸다. 18일 오전 9시부터 사전 참가신청을 받으며, 올해부터는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한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단독 대표이사이자 의장으로 분안 의결에 앞서 참석한 주주들에게 지난해 경영실적과 올해 사업전략에 대해 직접 나서 설명하고 질문에 답한다. LG전자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전환이라는 중·장기 지향점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모습. /뉴스시스

을 두고 사업모델과 방식의 혁신, 고객경험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주주들의 관심도가 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현황에 대해서도 소통한다.

올해 주주총회는 참석 경영진의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의장인 조 사장과 사외이사를 포함한 필수 참석 인원 외에도 사업본부장 4명을 비롯해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전략책임자(CSO),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이 참석한다. 경영전략에 대한 주주들의 질문에는 조 사장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최고경영진이 함께 답한다.

LG전자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3개년 신규 주주환원정책도 발표한다. 이 밖에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제도 승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1000만대 판매

8년간 일평균 약 3300대 이상 판매

2016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무풍에어컨이 8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가 17일 자사 무풍에어컨이 지난 8년간 매일 평균 약 3300대 이상 판매된 수준의 높은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알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무풍에어컨을 선보였으며 ‘직바람 없이 쾌적한 무풍’으로 에어컨 시장에서 주목 받았다.

매년 꾸준히 신제품을 내며 기능 개선도 이어가고 있다. /김서현 기자

현대차그룹, IT분야 등 인재 확보 속도

현대차, 내달 1일까지 경력직 채용

현대자동차·기아가 정보기술(IT) 부문 인재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달 기아가 IT 부문 두 자릿수 규모의 경력직 우수 인재 채용을 진행한 데 이어 현대차도 다음달 1일까지 인재 확보에 나섰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일까지 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채용 부문은 ▲연구개발 ▲IT ▲사업/기획 ▲경영지원 ▲생산/제조 ▲디자인 등 총 6개 분야다. 특히 현대차는 연구개발 부문 내 총 50개 이상의 직무에서 인재를 모집해 신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류 접수는 다음달 1일 17시까지며 직무 별 전형단계와 지원자격 등 상세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기아는 지난달 IT 부문을 비롯한 각 분야에 대해 경력직 우수 인재 채용을 진행했다. IT 부문 내 채용 직무는 총 16개로 ▲IT 개발 ▲IT 관리·기술지원 ▲SW 아키텍트(Architect) ▲데이터·인프라·보안 엔지니어 등으로 IT 개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양성운 기자 ysw@

에코프로, ‘EHS 지원실’ 신설

초대 실장에 연창교 상무 임명

에코프로가 가족사들의 안전환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조직을 지주사에 신설했다.

에코프로는 지주사인 에코프로 산하에 최근 ‘EHS 지원실’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EHS 지원실은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 안전(Safety)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조직으로 초대 EHS지원실 실장에는 연창교 에코프로비엠 상무가 임명됐다.

삼성전자 안전환경 분야에서 30여년 업무경력을 쌓은 연 상무는 지난 2022년 에코프로그룹에 입사, 에코프로비엠에서 안전환경 업무를 담당해왔다.

EHS지원실은 가족사 임직원들이 유해 위험을 제로화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리딩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스템 정비, 각종 사고 예방, 임직원 교육 및 전파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에코프로 서울 본사 전경 /에코프로

안전 환경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 대한 사전 센싱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환경은 모회사뿐만 아니라 협력회사들의 동참도 중요한 만큼, 장기적으로 협력사 임직원들의 안전환경과 관련해서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리딩할 계획이다.

연창교 에코프로 EHS지원실장은 “우리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 보건 활동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상의, 온라인 유통업계 지원 강화

디지털혁신팀 신설... 경쟁력 기여

대한상공회의소가 온라인 유통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온라인 유통업계 경쟁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팀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유통물류진흥원 내에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했다. 디지털 혁신팀은 온라인 유통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한다. 또 정부부

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 온라인 유통업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디지털혁신팀은 이와 함께 온라인 유통기업들이 개별 관리하던 상품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상품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품정보 경쟁력을 높이고 세분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현 기자